光州日報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4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음력 11월 4일 kwangju.co.kr

2025 세계양궁대회 광주서 열린다

5·18 민주광장서 결승전 "2038 아시안게임 유치 전력"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결승전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양궁대회 유치를 발판 삼아 2038광주·대구 아시안게임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스위스 로잔에서 5일 밤 늦게 낭보가 날아왔다"며 "세계양궁연맹 집행위원회 투표 결과 인구 320만의 세계적 스포츠·관광도시 스페인 마드리드를 제치고 압도적 지지로 광주가 2025년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성원해주신 광주시민과 정의선 공동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97명의 유치위원, 지역 국회의원,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 회장, 유치활동 실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준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양궁도시 광주 홍보대사 기보배·안산 선수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강한 도전정신과 시대발전을 선도해온 광주시민의 특별한 DNA가 공정과 배려, 열정과 도전의 스포츠 정신으로 발현되면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집행위 투표에서 10대 1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역사적 상징을 가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5·18 민주 광장'을 결승전 장소로 제시한 점이 '신의 한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결승전 후보지로 광주 국제양궁경기장 인근 월드컵 경기장과 5·18민주광장 등 2곳을 두고 고민한 끝에 5·18민주광장을 최종 결정했는데, 세계양궁연맹 집행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계양궁연맹 집행위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2 현대 양궁 월드컵도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 배출, 국제적 규격의 최신 경기장 보유 등 최상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 또 안산, 기보배, 주현정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홍보 대사로 참여해 대회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

이용섭 시장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면서 "기존 국제대회에 이어 세계양궁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38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의 동력으로 삼겠다"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춘 첫날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감염확산이 지속된 6일 오후 광주시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19, 때와 장소 안 가리고 확산

위드 코로나 중단 첫 날 광주·전남 곳곳 확산 잇따라 광주시청 본청서도 첫 확진

'위드 코로나 중단' 첫날, 광주·전남에선 공항과 관공서, 요양병원, 학교, 개인 모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이어졌다. 광주에선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처음으로 시청 본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나왔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 34명이 추가됐다.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북구 요양병원, 동구 합창 모임에서 3명씩 추가 확진됐다. 서구 초등학교, 광산구 중학교에서 각각 3명, 1명이 더 나왔고 휴양시설 관련도 2명 추가됐다. 타 시도 확진자 등 기존 확진자 관련이 13명 더 나왔다. 유증상 검사자도 10명에 달해 추가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날인 5일엔 43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광주시청 직원 중 1명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6일 선제적으로 확진 직원 근무지인 청사 15층을 방역하고, 해당 층 근무자 102명을 검사하고 있다. 시는 다만 확진 직원이 지난 3일 연차 휴가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집단 감염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1300여명이 근무(사업소·소방안전본부 제외)하는 광주시 본청에선 집단감염이 빈번했던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그동안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2시 기준 25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4694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무안 6명(해외 유입 2명), 순천·고흥 각 5명, 광양 4명, 나주 3명, 신안·담양 각 1명이다.

나주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2명이 확진됐고, 순천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 관계자 5명이 확진됐다. 고흥에서는 목욕탕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왔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3명이 나왔다. 광양에서는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 2명, 타지역 방문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 2명이 나왔다. 신안에서는 수협 직원이 한 명 확진됐다. 신안에서는 김장철 젓갈류를 취급하는 위판장과 횟집, 수협 등지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무안에서는 괌에 다녀온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무안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공항 보안검색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근무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광주공항 자회사 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한 이력도 확인돼 광주공항 일부 시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확진된 직원은 접종완료자로 입국 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흘간(1~4일) 수동감시 상태에서 정상 근무해 접촉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일까지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계획이 없어 공항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경차 혜택 확대·연장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판매 탄력 받는다

경차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는 '캐스퍼' 판매에 파란불이 켜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혜택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가리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보탰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최근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광주 시민은 캐스퍼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만큼의 보조금(광주 상생카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는 지난 9월 29일 첫 공식 출시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구매에 나서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강력 미제사건 18건 끝까지 쫓는다 ▶6면
손흥민, 이제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 ▶18면
굿모닝 예향 - 연극 배우 윤석화 ▶22면